

# 해남군,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후끈'

### 연인원 3만5천여명 방문...34억 경제효과 기대 따뜻한 기온·맛깔스런 음식·인프라 확충 등 주요

땅끝마을 해남이 동계 전지훈련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20일 해남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3일 첫 입성한 성관대학교 농구팀을 시작으로 해남에는 2024~2025 동계 기간 동안 12종목의 210개팀 3천명의 선수들이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연인원으로는 3만5천여명에 이르는 숫자다.

종목도 다양해 축구 36팀 940여명을 비롯해 농구 10개팀 158명, 야구 2개팀 87명, 펜싱 스토브리그 600명 등 대규모 선수단과 함께 배구, 배드민턴, 철인3종 등을 망라하고 있다.

특히 국가대표 육상 후보선수단과 청

소년대표, 꿈나무선수단 100여명이 1월 넷째주까지 훈련을 실시하고, 전국의 체육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육상 선수들이 연달아 해남을 찾아 대한민국 육상의 기대주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해남군이 주력 종목으로 유지하고 있는 근대5종 종목도 국가대표 상비군 등 5개팀 50여명이 찾아 세계무대에서의 활약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현재 해남에는 8개 종목 1천여명의 선수수가 상주하며 동계 전지훈련 중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한 설 연휴가 끝난 2월부터는 펜싱



8개 종목 1천여명의 선수들이 동계 전지훈련을 위해 해남에 상주하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해남군 제공〉

종목 스토브리그가 예정돼 있어 당분간 해남 곳곳이 스포츠 선수단으로 북적일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이번 시즌 동계 전지훈련 선수단의 방문을 통해 34억원 이상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일주일에서 한달 이상 체류하는 선수단은 지역 숙박업소와 음식점을 이용하면서 관광 비수기인 겨울철 지역경제에 큰 활력소가 되고 있다.

해남이 동계 전지훈련지로 각광받는 이유는 따뜻한 날씨와 맛깔스런 음식,

적극적인 시설 확충과 꾸준한 대외 홍보 등 수년간의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남군은 육상트랙과 천연 잔디구장을 갖춘 우슬경기장, 3면의 축구전용구장, 전국단위 대회를 치를 수 있는 우슬

체육관과 동백 체육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수영장과 실내육상 트레이닝장 등 각종 체육시설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계적인 육상 지도자로 알려진 일본 주니어 대표팀 전문지도자인 고마츠 타카시를 초빙해 육상 후보선수단의 기술지도를 지원했다.

또한 전지훈련 기간 운영되는 재활캠프는 전문 트레이너 5명이 상주해 수준 높은 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동계 전지훈련을 비롯한 스포츠마케팅은 골목없는 청정산업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반시설 확충과 해남만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전지훈련팀 유치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 기자



강진군이 최근 강진읍 시장에서 군민 400여명과 함께 '2025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진반값여행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반값 관광 성공을 기원하는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올사년의 힘찬 도약을 알렸다. 〈강진군 제공〉

## 강진, '지역경제 활성화·반값여행' 성공 결의

### 반값여행 횡수 연 4회로 확대...1인 최대 10만원 지원

강진군과 군민들이 올해 예상되는 지역경제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0일 강진군에 따르면 최근 강진읍 시장에서 '2025 지역경제 활성화 및 강진반값여행 성공다짐대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서순선 강진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농업인, 푸소단체, 관광·숙박업 종사자, 여성단체, 노인·청년회 등 각계각층의 군민 400여명이 참석해 지역경제 살리기 동참 의지를 다졌다.

이번 행사는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한 해 동안 다양한 경기부양정책을 시행한 성과를 기반으로, 2025년에는 '강진 누구나 반값여행'을 주축으로 더욱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결의를 선포하는 자리다.

이 행사는 1월2일 시무식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전 국민의 애도기간을 지나 개최됐다.

반값여행은 가족단위에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횡수도 연 2회에

서 연 4회로 확대한다. 1인 지원금도 최대 10만원까지 늘렸다.

반값여행 확대 시행을 통해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이 전략은 서비스업과 소상공인은 물론, 초록민음 소풍판 판매 확대를 통해 지역 농림축산산물 판매를 촉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반값관광이라는 카드를 중심으로 한 혁신적 경제 정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영암 교동지구 '현충공원' 조성

### 역사·문화 복합문화공간...4월 착공 목표

영암군은 "최근 군청에서 상이군경 회장을 포함한 5개 보훈단체 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충공원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영암읍 교동지구에 현충공원을 조성하는 이번 사업은 나라와 지역을 위해 희생한 순국선열 등의 업적을 선양하는 장소인 동시에, 주민이 평소 애를 찾을 수 있는 역사·문화·관광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주민 접근성을 높이고,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일상 속 보존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용역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용역 추진 경과, 기본 및 실시설계(안) 설명이 이어졌고, 보훈단체장과 마을주민 등의 의견 수렴도 이뤄졌다.

하혜성 영암군 주민복지과장은 "현충공원 조성사업은 보훈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며 "제시된



영암군이 최근 군청에서 '현충공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중간보고회'를 열고 기본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영암군 제공〉

의견들을 반영해 영암군민이 평소 애를 찾으며 자부심을 느끼는 복합문화공간이 마련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암군은 이번에 수렴된 의견을 반영하고, 다음달 28일 최종보고회를 거쳐, 올해 4월 착공을 목표로 현충공원 조성에 들어간다.

／영암=나동호 기자

## 영광군,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정비 사업 추진

### 사업량 36ha·16.8km...자생수종 생태적 가치 보존

영광군은 20일 "백수해안도로 산림경관 개선을 위해 백수해안도로 일대 숲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백수해안도로 숲 가꾸기 사업은 사업량 36ha, 16.8km로, 지난해 12월 20일에 착수해 오는 2월까지 추진하며, 백수해안도로 주변 산림에 대한 숲가

베기, 덩굴류 제거, 고사목 및 잡관목 제거 등의 작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백수해안도로 방문객들이 조망하는 해안 산림경관의 시각적 아름다움과 자연미를 함양하고 자생수종의 생태적 가치를 보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백수해안도로 365계단 인근 산림에 2022년도에 식재한 50그루의 모감주 나무는 화려한 노란 꽃과 독특한 모양의 종자 주머니를 갖고 있다. 국내 최대 모감주 군락지로서 약 5년이 지나면 6~7월 개화 시기에 노란꽃 물결로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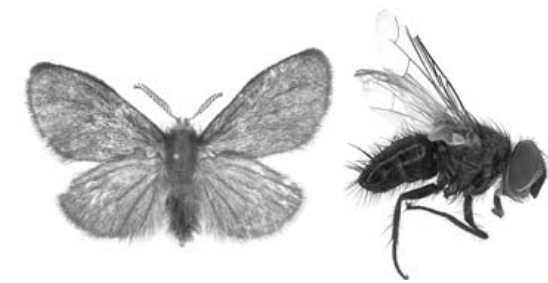
영광군 관계자는 "연중 풀베기 작업 등을 통해 산림경관을 깨끗이 정비해 방문객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생태적으로도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영광=김동규 기자

##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고하도서 신종 나방·기생파리 발견

### 생물다양성 증진·종간 관계 확인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최근 목포 시고하도 자원관 청사 내에서 발견한 주머니나방(科)의 신종 '가리줄집주머니나방(가칭·사진 왼쪽), Oiketicoides ghadensis (오이케티코이데스 고하도엔시스)'와 이종에 기생하는 미기록종 기생파리(科) 'Neophryxe psychidis (네오프릭세프사키디스·사진 오른쪽)'에 대한 논문을 국제학술지(SCIE) 저널(ZooKeys)에 발표했다"고 20일 밝혔다.

나뭇잎이나 나뭇가지로 집을 짓는



주머니나방 유충은 모양이 도롱이를 닮아 흔히 '도롱이벌레'로 불린다.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동물자원연구부 연구팀은 자원관 소재지인 고하도에서 이 신종을 채집하고, 학명을 'go

hadoensis'로 명명했다. 이번 논문 발표를 통해 이 신종 나방과 미기록종 기생파리가 학계에 공식 기록됐다.

이번 발견에 대해 명명자인 노승진·이동준 박사는 "신종 나방과 함께 그 안에 기생하는 미기록종 기생파리를 동시에 발견한 것은 생물다양성 증진뿐 아니라, 종간 관계까지 확인할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라고 전했다.

／목포=정해선 기자

## 강진산 파프리카 5.2t 미국 첫 수출

### 로망스골드·레아레드 품종 초도물량

강진군은 "최근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사업장에서 미국 뉴욕지역 수출을 위한 로망스골드 및 레아레드 품종 초도물량 5.2t에 대한 선적식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선적식에는 이병철 강진 부군수를 비롯해 박건우 농림축산식품부 사무관,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 신형민 농업회사법인 코파워 대표, 명동주 농업회사법인 탐진들㈜ 대표와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농업회사법인 탐진들㈜는 벨타입 3색(빨강·노랑·주황), 미니타입, 톱타입 등 다양한 품종을 재배하고 상품화해 일본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에 지속적으로 수출하고 있다.

현재는 국산 파프리카 종자인 로망스골드와 레드로망을 재배해 적극적으로 수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수출은 미국 현지 바이어 타텔

사르랄과 우리나라 파프리카 수출을 담당하는 농업회사법인 코파워의 각고의 노력 끝에 성사시켰다.

탐진들㈜는 지난해 일본 등으로 1천450t의 파프리카를 수출한 데 이어 올해는 수출 대상국을 더욱 다변화해 1천600t 이상의 강진산 국내 육종 파프리카 품종으로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

명동주 탐진들㈜ 대표는 "ISO9001, GLOBAL.G.A.P 등 국제품질인증과 함께 그 기준에 맞는 유휴성 검사를 실시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고품질 파프리카 생산과 수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진=정영록 기자

## 진도군, '2025 군민과의 대화' 추진

### 23일까지...조도면 등 7개 읍·면 방문

진도군은 20일 "23일까지 조도면을 시작으로 총 7개 읍·면을 순회, '2025년 군민과의 대화'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군민과의 대화는 ▲조도면(20일 오전 10시) ▲군내면(21일 오전 10시) ▲진도읍(21일 오후 2시) ▲의신면(22일 오전 10시) ▲고군면(22일 오후 2

시) ▲지산면(23일 오전 10시) ▲임회면(23일 오후 2시) 순으로 진행된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지난해 달성했던 군정 성과와 올해 군정 비전, 주요 운영 방안, 향후 계획 등을 군민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또한 군민들의 다양한 생활 불편 사항과 건의 사항을 경청한 후 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희수 군수는 "모든 소통의 시작은 주민 의견을 잘 경청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대화를 통해 군민의 일상을 꼼꼼히 살피고, 눈을 맞추며 동행하는 공감 행정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도군은 지난해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106건의 주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분기별로 주민 건의 사항과 숙원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진도=박세원 기자